

지역 소식통

부안군, 가정의 달 맞이
농특산물 할인판매 진행

부안군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오는 17일까지 우체국쇼핑몰에 '부안군 가정의 달 브랜드관'을 개설해 온라인 특별할인전을 진행한다.

부안군 가정의 달 브랜드관에서는 부안군의 대표 농특산물인 동진수미감자를 비롯한 곱소갯감, 감치, 쌀, 버섯 등 22개 업체 320여개 품목을 부안군 5% 할인쿠폰을 제공하여 할인 판매하고, 소금 25시, 슈퍼윙클리 등 특가 이벤트 등을 통해 추가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소비자들의 온라인 소비패턴 트렌드를 반영하고 관내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지난해 11월 부안우체국과 우체국쇼핑몰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5개월만에 부안군 농특산물 70여톤(동진감자 24톤, 천년의솥쌀 30톤, 수산물 6톤 등)을 판매하여 부안군 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약7억원의 판매 성과를 올린 바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농촌에서 살아
보기' 사업 힘찬 출발

정읍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을 위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귀농·귀촌 실행 전 도시민들이 농촌에 장기간 거주하며 일 자리와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해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참가자에게는 별도 참가비 없이 1개월 동안 주거시설과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 참여자 모집에는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 총 22가구가 신청했으며, 농촌 정착 의지와 귀농·귀촌 교육 접수 등을 심사해 최종 9가구 10명의 참가자를 선정했다.

사업 운영은 떠오르는 달오름 풍경이 맑고 아름다워 달고운 청정마을이라고 불리는 산내면 사교마을이 맡았다.

/정읍=김대환기자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정읍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일원서 7~8일 2일간 개최

올해로 55회째를 맞는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가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그때의 하늘, 지금의 우리 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기념제는 정읍시가 주최하고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가 주관한다.

감오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다양한 즐길 거리와 함께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5월 가정의 달에 열리는 행사에 걸맞게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마당과 프리마켓, 청소년 사생대회·

백일장 등 다채로운 참여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우리나라 전통 예술의 우수함을 알리는 무형문화재 합동 발표회와 창작관소리 '녹두장군 전봉준', 황토현 전국농악 경연대회 등이 펼쳐진다.

7일 기념제는 무명 동학농민군 위령제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구민사 갑오선열 제례로 시작하여, 구민사 갑오선열 제례와 기념식,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무명 동학농민군 위령제는 사발봉문 작성 행사와 폐정개혁안 낭독, 헌양·헌화, 고유문 낭독, 참석자 헌화 순으로 진행되며, 이름을 알리지 못한 무명 농민군의 영령을 추모할 예정이다.

'유기상, 한번 더 높을고창'

고창군수 예비후보, 펀드 공식 개설 첫날 성황리 완판

지난 2일 '유기상, 한번 더 높을고창' 펀드가 공식 개설 첫날 목표액 1억2,100만 원을 달성,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유기상 고창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의향 고창군민들과 함께 손잡고 고창의 투명한 선거문화를 이끈다는 취지로 개설한



펀드가 하루 만에 완판이 되어 놀랍고 군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러한 군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는 '한번 더 높을고창', '한번 더 유기상'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승리를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유기상 한번 더 높을고창' 펀드는 6.1지방선거 후 선거비용 정산과 함께 8월 3일 월급에 이자 20%를 더해 8월 3일에 투자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기자

6억5천만원 투입 '빈집 180동 정비 · 재생사업 추진'

정읍시, 도시미관 저해 · 사회문제 유발... 빈집 정비 나서

정읍시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와 범죄 등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빈집 정비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아 흉물로 전락한 빈집은 미관 저해를 비롯해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등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빈집 정비의 기본방향인 정비계획을 수립해 공공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위탁해 지역 내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심 빈집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투입해 빈집 5개소를 철거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주민 편의 증진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1억원을 투입해 경관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붕괴위험 등 상태가 불량해 철거 대상인 빈집은 안전사고의 위험과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직권 철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빈집 실태조사 결과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을 마련해 소유주의 자진 철거 유도 외에도 다양한 빈집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빈집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운곡마을, 7년간 습지복원 노력 이어져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고창 운곡습지를 보존하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이 올해도 이어졌다.

3일 고창군에 따르면 세계관광기구 선정 최우수관광마을 '운곡마을' 주민들이 운곡습지의 산지형 저층습지 보전과 습지 확대를 위해 올해도 습지복원 활동을 실시했다.

2016년부터 마을주민들은 논둑을 활용한 습지 수위 유지법(이하 '논둑복원')을 시행해 오고 있다.

운곡마을의 습지복원 활동은 전복지 방관경청 · 고창군청 · 고창운곡습지생태관람회의가 함께하는 장기협력사업이다. 타지역에서 벤치마킹으로 방문한 만큼 습지복원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고창군은 운곡마을 주민들의 7년간의 노력이 담겨 형성된 논둑복원지를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계적인 모범사례로서 소개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실제 유네스코MAB과 고창군이 협업체계 중인 '대한민국 유네스코 유산기행' 프로그램에 수화여행 ·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등의 코스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고창군청 이성수 생태환경과장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운곡습지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었다. 고창군도 고인돌-운곡습지 순환버스 운행 검토 등으로 운곡습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익현 부안군수 예비후보, 2023년 수소연료전지 저상버스 도입 발표

권익현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예비후보가 어르신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소연료전지 저상버스 도입'을 '한번 더 권익현의 소화행 공약 7호'로 3일 발표했다.

권익현 예비후보는 수소연료전지 저상버스 도입으로 장애인과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그동안 이산화탄소 배출과 함께 미세먼지 발생의 한 요인으로 작용해 온 농어촌 경유 버스를 대체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또 2023년 새만금 세계잡버리에 참가하는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부안의 수소연료전지산업을 체험할 기회를 부여해 그린에너지 도시 부안을 실현하고 국제사회에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권익현 예비후보는 부안이 수소연료전지 저상버스를 전북 최초로 도입할 수 있는 것은 타 시군에

비해 선제적으로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수소승용차와 버스, 트럭 등 상용차 충전도 가능한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를 민산기에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권익현 예비후보는 "군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가 이동권"이라며 "부안에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신체적 불편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오는 2023년 전북 최초로 수소연료전지 저상버스 2대를 도입하고 향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본격적 영농철 지원 강화 상황실 가동

부안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이 맞아 농업인들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영농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상서면 감곡리 김영섭 농가의 첫 모내기 시작을 시작으로 5~6월 본격적인 모내기와 함께 밀·보리 등 수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군은 모내기철과 밀·보리 수확기를 앞두고 벼농사 필수 영농자재인 육묘상토(8,600톤)와 유기질비료(18,983톤) 등의 지원을 추진하고 농촌일손돕기 및 농기계 사후봉사 등을 위해 영농상황실을 가동해 적기영농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농업재해에 대비코자 오는 6월 24일까지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봄철 농기계안전사고에 대해서도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